

초등교육연구 제6집(2001. 5.) pp. 61~92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1세기와 제주 전통문화 교육*

윤 치 부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20세기 제주 전통문화 연구
3. 21세기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과제
4. 맺음말

1. 머리말

21세기는 미래적 화두가 아니라 현재적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함으로써 적어도 두 세기에 걸쳐 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새로운 21세기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20세기적 사고의 패턴으로서는 21세기적 삶의 양식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연속성은 단절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의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느 시대나 과거와 격절된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

지난 20세기는 인류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 주었는데, 특히 우리 제주 사람들에게

* 이 논문은 지난 1999년 12월 28일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주최 '새 천년, 제주사회의 변혁과 초등교육'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조금 보완한 것이다.

도 4·3사건이라는 크나큰 상흔이 남아있는 시대이다. 아울러 생활 방식 곳곳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였던 시대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서도 컴퓨터의 등장은 인간의 존재 의미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 마주 보며 상호 작용하던 실제적 만남의 장이 아닌 컴퓨터의 가상 공간 속에서도 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불과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로써 앞으로 새 천년뿐만 아니라 새 백년까지도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지난 이천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인 제주 전통문화는 지나온 시간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탐라국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기층문화는 물론 외세 강점 문화¹⁾, 표류문화²⁾, 유배문화³⁾ 등의 대륙 문화⁴⁾와 해양문화⁵⁾가 통합되어 있기⁶⁾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것을 몇 마디 말로 집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기에 이 글에서는 일차적으로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차적으로 이를 토대로 21세기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과제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21세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 10년이나 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이 작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
- 1) 金泰能, “元의 耽羅支配와 牧馬場設置”,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pp.34~37. ; 高昌錫, “元·明交替 期の 濟州島”, 《耽羅文化》 4,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p.1~24. ; 高昌錫, “中世史”, 《濟州道誌》 1, 濟州道, 1993, pp.705~794.
 - 2) 尹致富,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 鄭炳显, “漂海錄 解題”, 《人文科學》 6, 延世大學校, 1961, pp.175~191. ; 崔常壽, “李光彬의 長崎島漂流와 그 氣風”, 《제주시》 2, 제주시, 1966, pp.46~49. ; 崔康賢, “한국해양문학연구 : 주로 표해가를 중심으로”, 《省谷論叢》 12, 省谷學術文化財團, 1981, pp.235~265. ; 高柄翊, “崔溥의 錦南漂海錄”,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pp.12~133. ; 吳瑄錫, “漢文紀行研究 : 張漢詰의 漂海錄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秦榮一, “濟州島·沖繩의 地域史에 관한 比較史 試論”, 《耽羅文化》 1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pp.43~72.
 - 3) 金奉鉉, 《濟州島流人傳》, (東京)國書刊行會, 1981. ; 梁淳珉, 《濟州流配文學研究》,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 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지성사, 1999.
 - 4) 李清圭, 《濟州島 考古學 研究》, 學研文化社, 1995. ; 宋錫範, “考古資料”,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375~402. ; 禹樂基, “濟州의 先史文化”, 《濟州道》, 正文社, 1980, pp.729~742.
 - 5) 송성대, 《제주인의 海民精神 :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1999. ; 고선희, “제주인의 IDENTITY”, 《21세기 모두를 위한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1998, pp.51~105.
 - 6)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2. 20세기 제주 전통문화 연구

제주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는 우리 나라 학자보다는 아쉽게도 일본인 학자들이 주동이 되었다. 小倉進平과 河野六郎의 제주 방언 연구, 高橋亨의 제주 민요 연구, 泉靖一의 제주 연구 등이 그것인데,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한 제주의 전통문화 연구는 해방 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총론적인 향토사 연구에 담수계⁷⁾, 양홍식·오태용⁸⁾, 김옥민⁹⁾, 한치문¹⁰⁾, 김태능¹¹⁾, 박용후¹²⁾, 김종업¹³⁾, 김봉옥¹⁴⁾ 등의 성과가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사회생활 연구에 석주명¹⁵⁾, 현용준, 진성기, 최재석, 김혜숙 등의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 민간신앙에는 장주근, 현용준, 김영돈, 진성기 등의 여러 업적들이 소중하며, 생산기술에 대해서는 현용준, 김영돈, 진성기, 강대원, 문무병, 고광민 등이 굵직한 연구물을 내놓았거나 계속해서 연구 중이다. 의식주에는 고부자, 김홍식, 홍양자, 김양순, 고양숙 등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세시풍속에는 진성기, 홍정표의 연구 성과가 주목을 끈다. 제주 방언 연구에 있어서는 방중현¹⁶⁾, 이승녕¹⁷⁾, 이기문¹⁸⁾, 현평효¹⁹⁾, 서정범²⁰⁾, 박지호²¹⁾, 강윤호²²⁾, 성낙수²³⁾, 김한곤²⁴⁾ 등이 연구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그 가운데도 현평효의 연구는 제주 방언 연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셈이다. 제

7) 淡水契, 《增補耽羅誌》, 프린트판, 1954.

8) 梁弘植·吳太用, 《濟州鄉土記》, 프린트판, 1958.

9) 金玉敏 外, 《濟州道誌》, 濟州新聞社, 1962.

10) 韓致文, 《耽羅實錄》, 韓進文化社, 1973.

11)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12) 朴用厚, 《濟州島誌》, 白映社, 1966. ; 高炳五·朴用厚, 《元大靜郡誌》, 博文出版社, 1968. ; 朴用厚, 《南濟州郡誌》, 상조사, 1978.

13) 金宗業, 《耽羅文化社》, 도서출판 조약돌, 1986.

14)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15) 石宙明, 《濟州島生命調査書 : 濟州島人口論》, 서울신문사출판부, 1949.

16) 方鍾鉉, “濟州島の方言”, 《朝鮮文化叢說》, 東省社, 1947.

17)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의 研究”, 《東方學志》 3, 延世大學校, 1957.

18) 李基文, “濟州島 方言의 ‘·’에 關連된 몇 問題”,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탑출판사, 1977.

19)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小考”,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東國大學, 1963.

20) 徐廷範, “濟州島方言 點考”, 《高鳳》 1-2, 慶熙大學校, 1957.

21) 朴址浩, “濟州島方言에서 본 ‘·’音小考”, 《論文集》 1, 濟州實業專門大學, 1976.

22) 강윤호, “제주도방언에 있어서의 공통어계 어휘의 음운양상”, 《한글》 126, 한글학회, 1960.

23) 成洛秀, “濟州島方言에 나타난 音韻體系”, 《방언》 2, 延世大學校 方言研究會, 1968.

24) 金韓坤, “濟州方言 母音體系의 音響分析”,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0.

주 민요 연구는 진성기, 김영삼, 홍정표, 김영돈, 임현도, 좌영조, 윤치부, 좌혜경 등이 문학적·민속학적 연구를, 服部龍太郎²⁵⁾, 나운영, 한만영, 권오성, 이보형, 조영배 등의 음악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화 연구에는 장주근, 진성기, 현용준, 양중해, 현길연, 고광민, 현승환 등의 연구 성과가 있으며, 속담·수수께끼·금기어는 김사엽²⁶⁾, 진성기, 현용준, 김영돈, 고재환 등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그 동안 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1. 사회생활

제주의 가족은 육지의 전통적인 가족유형인 직계가족이 아니라 부부가족(핵가족)의 형태를 취한다. 차남이나 삼남은 물론 장남이라도 결혼하면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울타리 안에 살더라도 경제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²⁷⁾ 분가의 형태는 부모가 이사를 가는 경우와 자식이 이사를 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부모가 살던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새로 짓거나 사들여서 미혼자녀와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고, 후자는 부모가 살던 집에 그대로 미혼자녀를 거느리고 살며 자식이 새 집으로 이사를 나가는 형태인데 차남 이하의 자식을 분가시킬 때 쓰는 방식이다. 분가의 시기는 결혼 직후가 원칙이지만 형편에 따라 결혼 10년 후에 분가하는 경우도 있다. 분가할 때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형제간의 균등상속을 취한다.

가족의 역할 구조에서도 젊은 부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의 부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힘든 일은 남편이 담당하고 그렇지 못한 일은 부부 공동 또는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 전적으로 여자만이 담당하는 '물질'을 제외하고도, 육지의 양반 부녀자에 비하면 제주도 부녀자의 농사일에의 참여가 훨씬 높은 편이다. 잡녀 가족의 권력 구조에 있어서도 육지의 농촌 부부에 비교하면 남편의 결정권은 약한 편이고 부부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비율은 제주도가 높다. 또 혼인 과정에 있어서 모계친과 신부집의 역할도 부친집과 신랑집의 역할에 못지 않게 적극적이고, 남녀간이나 사돈간의 사회적 격리사상도 약하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달리 한 마을 안에서 결혼하는 일이 많으며, 따

25) 服部龍太郎, 《濟州島民謠紀行》, (日本)未來社, 1972.

26) 金思樺, 《俗談論》, 大建出版, 1953.

27) 崔在錫, “親族生活”, 《韓國民俗大觀》1(社會構造·冠婚喪祭),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p.365.

라서 마을 내에 거주하는 모계친에 대해서도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어 부계친과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 이혼한 여자의 경우 재혼의 길을 밟게 되지만 또 일부는 첩의 길을 택한다. 제사나 제사의 경제적 기반인 벌초의 상속은 원칙적으로 장자에게 계승되므로 재산이 여러 아들에게 균등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중심의 제사조직이라 할 수 있다.²⁸⁾

제주의 마을 공동체는 두레 노동과 생산 경제활동인 '수눌음'이나 관혼상제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契'와 '接', 조상을 모시는 제사, 그리고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을 중심으로 하는 단골조직을 이루고 있다. 즉 생산공동체, 제사공동체, 굿공동체의 사회조직으로 이루어져 생활과 신앙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²⁹⁾

2.2. 의례생활

2.2.1. 관례

제주에서는 자라나서 성인이 되는 관례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이는 관례가 귀족층에 치중되어 치러졌다거나 혼례와 어우러진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등돌'을 들어올림으로써 힘 겨루기 하는 놀이가 전승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성년의식으로서 관례라고 할 수 있다.³⁰⁾ 제주 서부에서는 대체로 '등돌'이라 일컫고, 동부에선 '드름돌'이라 하는데, 해마다 열리는 한라문화제에서도 민속경기로 전해지고 있다.

2.2.2. 혼례

전래적인 제주 혼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집약된다. 잔치를 치르는 날짜가 닷새 동안에 이를 만큼 그 기간이 길며, 혼례 당일에 예식을 생략했으

28)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p.9~11. ; 김혜숙, 《제주도의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pp.186~194. ; 泉靖一, 《濟州島》, 洪性穆 譯, 濟州市愚堂圖書館, 1999, pp. 145~241. ; 玄容駿, "濟州島의 儒式部落祭", 《石宙善教授回甲紀念 民俗學論叢》, 同刊 行委員會, 1971, pp.227~252. ; 李光奎, "社會",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島篇), 文化財管理局, 1974.

29) 泉靖一, 앞의 책, pp.218~223.

30) 崔德源, "들돌(舉石) 信仰考", 《南道民俗考》, 삼성출판사, 1990, pp.39~68. ; 김영돈, "제3편 통과 의례 · 민간신앙",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344.

며, '문전코시'(門前告祀)라는 의식이 특이하게 전승되며, 모계친과 부계친이 거의 대등하게 참여하며, 가족 단위로 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부조하며, 주로 마을 안에서 혼인을 맺어왔고, 여인들은 시집갈 때 필요한 혼수를 스스로 마련한다.³¹⁾

2.2.3. 상례

제주에서 전래적으로 치러지는 상례로서 우선 내세울 수 있는 바는 분묘의 형태다. 바로 봉분 사방으로 네모나거나 둥그렇게 돌담을 쌓는 일인데, 이 돌담을 '산담'이라 한다. 돌이 많은 제주이고 보면 이 돌을 이용하여 조상의 분묘를 마소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역을 분명히 하는 '산담'을 두르는 일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래적으로 상례 때 부조가 철저히 의무적인 것도 특이하다. 치러야 할 부조를 어겼을 때에는 친족 사이에서 크게 지탄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제주 상례에서는 남녀 상제들의 장례비 부담이 거의 골고루 이루어진다. 이처럼 여자 상제 역시 상례의 일부 의무와 상례 비용을 분담하고, 부조를 접수하고 분배받는 일은 특이한 풍습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의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 상두꾼들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마을의 한 어른을 사또(또는 원님)로 선정하여 모셔들이고 흥겹게 노는 '사또놀이'(또는 원님놀이)를 하는 것도 색다르다. 이 사또놀이는 장수하고 복력이 있으며 덕망이 높은 사람의 장례 때에 치러진다. 이러한 장례의 배경에는 풍수사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정시'(地官)에 의한 좋은 뒷자리 잡기가 바로 그것이다.³²⁾

2.2.4. 제례

제사의 이양은 원칙적으로 장남에게 계승되고 初獻者와 제사 장소는 언제나 장남과 장남의 집이다. 제사 장소와 비용의 부담이 장남에게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 작성의 기준은 아버지이고 獻官도 아버지가 노쇠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핵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제사에 참여한다. 한편 제사를 담당할 남자가 없거나

31) 金榮敦, 《濟州島民의 通過儀禮》, 文化財管理局, 1966. ;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 金榮 墩·高光敏, "通過儀禮篇", 《濟州의 民俗》 I, 濟州道, 1993. ; 김영돈, "제3편 통과 의례·민간신앙",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337~417.

32) 주 8)과 같음

또는 있더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출타 등으로 제사를 담당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여자가 남자를 대신해서 제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도 특이하다.³³⁾

2.3. 의생활

제주 의생활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크게 자연 환경과 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양분된다. 전자의 경우 북방계와 남방계적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데, 북방계적 양식이라 함은 산간지역의 牧者服에서 나타나는 방한형이며, 남방계적 양식은 해안 지역의 잠수용 작업복에서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 京樣式과 제주식이 공존하는데, 경양식이란 우리 나라 상류층에서 착용되는 양상으로 관리의 복식과 三姓穴祭服이나 향교제복, 酬祭服, 巫服 등의 의례복에서 주로 나타나며, 제주식이란 제주 토착민들의 ‘소중이’ 같은 일상용 옷과 ‘갈옷’이나 ‘잠녀복 물소중이’ 같은 노동용 옷 및 ‘호상옷’과 같은 의례복에 나타난다.³⁴⁾

2.4. 식생활

제주의 음식은 자연 재료의 사용과 조리법의 단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는 농지 사정이 좋지 못하고 주변의 바다 환경에 대해서도 어로기술의 발달하지 못해 식량 획득이 용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남녀노소는 집 밖으로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음식의 조리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연구 개발할 여유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제주에서 전해지는 요리의 특징을 보면 재료의 가짓수가 많지 않으며, 음식의

33) 崔在錫, 앞의 책, pp.277~278.

34) 高富子,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의 研究”,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 고부자, “濟州地方의 衣生活”,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1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6. ;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金義淑, “濟州島 牧者服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1. ; 고부자, “濟州島 衣生活의 民俗學의 研究”,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고부자, “日常服”, 《濟州의 民俗》IV, 濟州道, 1996, pp.15~104. ; 김정숙, “海女服”, 《濟州의 民俗》IV, 濟州道, 1996, pp.105~153. ; 김의숙, “牧者服”, 《濟州의 民俗》IV, 濟州道, 1996, pp.154~206. ; 고부자, “제1장 의생활”,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53~93.

꾸밈새가 단순하고, 여러 가지 양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조리 시간이 길지 않다. ‘톨밥’, ‘자리물회’, ‘자리젓’, ‘빙떡’, ‘오메기떡’, ‘선다리’ 등은 특유의 전통음식이다.³⁵⁾

2.5. 주생활

제주의 집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대칭형과 별동 배치형식을 취한다. 이 배경에는 무속신앙과 풍수사상, 기후에 대한 적응, 제주의 특이한 가족제도 등 복합적 문화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 배치형식에서 생성된 외부공간은 집 밖에서부터 주택 내부의 공간쪽으로 ‘거리길’, ‘올레’, ‘올레목’, ‘마당’, ‘안뒤’ 순으로 이루어져 공간 기능의 충실도를 높여준다. 이 외에도 ‘우영’, ‘놀굽’, ‘통시’ 등이 외부공간에 위치한다. 집은 一자 겹집을 기본으로 하여 분할식 평면구성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는데, ‘안거리’, ‘밭거리’, ‘목거리’ 등은 마당을 중심으로 口자로 구성된다. 안거리 한 채와 부속채로만 이루어진 집을 ‘외거리 집’이라 하고, 안·밭거리를 갖춘 두 채의 집을 ‘두거리집’이라 한다. 이 때 안거리와 밭거리는 마당을 중심으로 二자로 마주보기도 하고, 丿자로 배치되기도 한다. 집이 규모를 갖추게 안거리, 밭거리, 부속채의 목거리를 포함한 3채 혹은 4채로 이루어지는데, 밭거리나 목거리는 ‘이문간’으로 구성되기도 한다.³⁶⁾

35) 진성기, 《남국의 향토음식 : 제주도 향토음식》, 제주민속연구소, 1985. ; 《향토음식교재》, 제주도여성회관, 1987. ; 《제주전통음식》, 제주도농촌진흥원, 1993. ; 《제주도의 식생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 洪陽子, “食”,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162~169. ; 洪양자, “일상음식”, 《濟州의 民俗》 IV, 濟州道, 1996, pp.207~280. ; 高양숙, “저장음식”, 《濟州의 民俗》, 濟州道, 1996, pp.281~336. ; 高양숙, “특별음식”, 《濟州의 民俗》 IV, 濟州道, 1996, pp.304~336. ; 張洪忠, “儀禮飲食”, 《濟州의 民俗》 IV, 濟州道, 1996, pp.337~347. ; 金순이, “救荒飲食”, 《濟州의 民俗》 IV, 濟州道, 1996, pp.382~428. ; 高부자, “식생활”,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94~135.

36) 김정기·김홍식, “주생활”,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 姜항생, “제주도 안 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金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金石崙, “濟州道の 傳統家屋 : 濟州道 指定 草家 및 瓦家”, 《濟州道民俗資料》, 濟州道, 1987, pp.141~249. ; 申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金홍식, “제주의 마을 및 주거공간에 대한 조사 연구”, 《濟州의 民俗》 IV, 濟州道, 1996. ; pp.431~442. ; 金석윤·申석하, “제주도 민가”, 《濟州의 民俗》 IV, 濟州道, 1996, pp.495~649. ; 申석하, “주생활”,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36~178.

2.6. 민간신앙

2.6.1. 무속

제주에서는 무당을 '심방'이라 한다. 이 심방은 굿과 이에 준하는 의례를 집행하는 자와 임산부의 해산을 돕는 조산원의 역할 및 아이의 무병 성장을 기원하는 소규모의 의례만을 집행하는 '삼승할망'으로 구분한다. 굿을 하는 심방은 그 기능에 따라 어떤 굿이든 능히 할 수 있는 '큰심방', 큰굿의 일부나 작은 굿을 할 수 있는 '소미', 굿을 할 때 심부름하는 '제비'로 나누어진다. 제주의 굿은 마루 상방에 우주의 모형으로 '당클'을 만들고, 모든 신을 일제히 모셔들이는 '초감제'로부터 시작하여 당클에 모셔진 신들을 그 지위에 따라 상위신에서부터 하위신까지 차례대로 개별의례를 치루어 나가는데, 그 방식은 '본풀이·맞이·놀이'의 형식을 취한다. 또 제주에는 마을마다 堂神이 있는데, 이는 '본향' 또는 '토지관'이라 하여 그 마을의 주인과 같은 신이다. 이 신을 모신 당을 本鄉堂이라 하는데, 이 당신은 그 마을 주민의 생산 활동, 삶과 죽음, 질병과 재난을 관장 수호한다.³⁷⁾

2.6.2. 유교식 마을제

유교식 마을제란 釋奠祭를 기본 틀로 하여 남성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남성 유지들이 제관이 되어 거행하는 형식의례다. 이러한 유교식 마을제에는 마을 수호신을 위한 의례인 酬祭, 포제와 별도로 지내는 역병이나 재난을 방지하는 의례인 別祭, 가문의 해갈을 비는 의례인 기우제, 어업 특히 어망업 관장신을 위한 의례인 海神祭, 農神을 위한 의례인 帝釋祭, 무속의 본향당제를 유교식으로 거행하는 堂祭 등이 있다.³⁸⁾

2.6.3. 풍수사상

제주의 풍수사상은 조상의 유해를 地氣가 성한 곳에 안장해야 가문 혈족이 크게 번창한다는 陰宅風水思想이 널리 통용되는 편이며, 일가가 창성하고 그 자손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기가 왕성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陽基·陽宅風水思想 또한 음택풍수사상에 비해 덜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대로 제주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반면 한 나라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지기가 왕성한 곳을 택해서 국도

37) 玄容駿, 《濟州島 巫俗 研究》, 集文堂, 1996. ; 문무병, "민간신앙",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375~388.

38) 문무병, 앞의 글, pp.390~410.

를 삼아야 한다는 王都風水思想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³⁹⁾ 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는 고종달형 전설이 전해지는데, 제주는 원래 王侯之地인데 이 사실을 안 중국왕(또는 고려왕)이 고종달을 제주에 파견 곳곳의 地穴을 뚫어버린 결과 제주에는 生水도 왕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주 사람들의 풍수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斷穴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풍수에 의해서만 그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⁴⁰⁾

2.7. 세시풍속

제주의 풍속은 몽고나 일본과 공통되는 것과 제주 특유의 것으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긴 대바구니로 아기를 재우는 ‘아기구덕’을 사용하거나 개 또는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방한용 사냥모자인 ‘가죽감테’는 몽고와 공통되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를 끈으로 두 어깨에 매어 업거나 짐을 끈으로 두 어깨에 매어지며 머리에 이지 아니하는 것은 일본과 공통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해마다 8월 보름날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양쪽으로 편을 나누어 굽은 줄을 양 끝에서 당겨 승부를 겨루는데, 만약 중간에 줄이 끊어져 양편이 땅에 쓰러지면 보는 사람들이 웃으며 즐기는 ‘줄다리기 [照里戲]’⁴¹⁾나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新舊間’이라 하여 신구년의 歲官이 바뀌어져 지상의 모든 신이 하늘에 올라가 신이 자리를 비운 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흉이 없다고 하여 가옥, 변소 등의 수리도 하고 이사를 하는 풍습을 제주 특유의 것이다. 또한 음력 2월 초하루는 강남천자국의 영등할망이 제주에 들어와 한라산을 돌며 꽃씨를 뿌리고, 들판에 오곡의 씨를 뿌리고, 바닷가로 돌면서 우무·전복·소라·해삼 등의 해산물의 씨를 뿌리고 2월 15일 제주를 떠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제주의 각 마을에서는 영등굿을 한다.⁴²⁾ 그리고 이 영등굿의 일부로 때

39) 尹致富, “濟州 說話에 나타난 風水思想”, 《德齋申瑬俊博士華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9, pp.103~124.

40)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pp.69~70.

41) 李荇 外,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風俗條, “每歲八日 男女共聚歌舞 分作左右隊 曳大索兩端 以決勝負 索若中絕兩隊仆地 則觀者大笑 以爲照里之戲”; 李元鎮, 《耽羅志》 風俗條; 高炳五, 《元大靜郡誌》, p.14.

42) 진성기, 《남국의 민속》, 교학사, 1980. ; 문무병, “세시풍속”,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421~451.

[槎)를 노 저어 몰아가는 '躍馬戲'(떼몰이 놀이)의 競漕民俗이 행해졌다.⁴³⁾

2.8. 전승놀이

2.8.1. 어른 놀이

제주는 한본토에 비해 놀이문화가 그리 발달한 편이 아니다. 그러기에 세시에 따라 또는 한가한 계절이 바뀔 때에 몇몇 놀이가 전해졌다. '사또놀이'는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놀이이다. 상두꾼들은 사전에 마을의 어른들 중 어느 한 사람, 대개는 덕망 있고, 비교적 재력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둔다. 그리고는 모든 장례절차가 끝나면 가마 위에 갑자기 이 사람을 사또로 모시고 마을까지 내려오면서 유희를 하고, 또한 마을에 내려와서 그 사람의 집으로 곧장 들어가서는 잔치를 베푸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 놀이가 벌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상두꾼들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가마와 갓, 관복, 담뱃대 등을 마련하여 장지까지 가서 갑자기 주목해 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가마에 태운다. 마을에 내려오면 대개는 사또를 가마에 태운 채 마을을 한 바퀴 돈다. 마을을 돌 때부터는 구경나온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한데 어울려 일종의 마을 잔치를 한다. 이 외에도 등돌 들기, 닭싸움놀이, 화전놀이, 줄다리기(照里戲) 등이 있다.⁴⁴⁾

2.8.2. 어린이 놀이

어른 놀이가 신앙성을 띤 것이 많다면 어린이 놀이는 오락적 성격이 강하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가메 타기(가마 타기), 곤각시 만들기(색시 만들기), 게 잡기, 기러기놀이, 끈(고누), 눈(目)싸움, 눈(雪)싸움, 도래기치기(팽이치기), 둔쇠(마소 치기), 둔치기, 뚜림놀이(두루미놀이), 물싸움고장놀이, 말흥내놀이, 말탈락(말타기), 줄드래기(꼬리따기), 뽕이치기, 잉어놀이, 청애조심, 행경놀이 등이 있다.⁴⁵⁾

43) 玄容駿, "躍馬戲考",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0, pp.679~698.

44) 진성기, 《남국의 민속놀이》, 흥인문화사, 1975. ; 조영배, "민속놀이",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452~469.

45) 진성기, 위의 책. ; 좌혜경, "제주 전승 아동놀이 고찰", 《玄容駿博士華甲紀念濟州島言語民俗論叢》,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pp.531~548.

2.9. 민속예술

2.9.1. 굿놀이

문헌에 나타난 제주의 민속놀이는 花盤, 躍馬戲, 입춘굿 등을 들 수 있다. 화반은 산, 늪, 냇물, 연못, 언덕, 물가, 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당이 귀신의 기를 받들고 경을 읽어 귀신 쫓는 놀이를 하는데,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돈을 내놓으며 굿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⁶⁾ 약마희는 이월 초하루 귀덕, 김녕 등지에서 대나무 장대 열두 개를 나란히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말머리 같은 떼배를 구하여 채색한 비단으로 장식하고 신을 즐겁게 하며 보름이 되면 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⁷⁾ 입춘굿놀이는 입춘날 제주목 관아에서 관민이 합동으로 벌이던 풍농굿이며, 가면극이며, 걸궁이다. 이 날은 전도에 흩어져 있는 심방들이 지금 제주시의 관덕정 앞에 모여, 제주목 성안의 민중들과 시골에서 구경나온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벌였다. 굿이 시작되면 목사 이하 관원들과 심방의 우두머리인 도황수가 나란히 앉아 대등하게 관람하였다. 입춘굿의 내용은 한해 농사의 풍등을 비는 모의적인 농경의례와 관민이 화합하여 하나되어 노는 탈놀이 마당, 관아를 돌며 문굿을 쳐주고 부정을 막는 門前告祀와 마을 걸궁패의 가장행렬 또는 길놀이로 이루어진 걸궁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대동놀이 한 마당의 큰 잔치였다. 이 외에도 農神을 뜻하는 '세경'을 위한 풍농굿으로 성행위와 임신·출산의 생활 과정을 자연의 질서 속에 대입하여 획득한 類感呪術的인 놀이굿인 '세경놀이', 가난이라는 나쁜 전상(前生)을 집 밖으로 내쫓고 富라는 좋은 전상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상놀이', 도깨비탈(종이탈)을 쓰고 영감으로 차린 도깨비들이 제장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수선을 떨고 영감상에 차려놓은 진상물들을 잘 대접받고 제장을 떠나는 풍자적 놀이굿인 '영감놀이', 큰굿의 조상놀림이나 당굿을 통하여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조상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놀이굿으로 사냥하며 살던 조상들의 사냥법·분육법 등을 굿판에 모의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우마 번성을 기원하고 조

46) 李荇 外,《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 風俗條, “俗尙陰祀 乃於山藪川池丘陵墳衍木石 俱設神祀 每歲元日至 上元 巫覡共擊神龜 作儼戲 鍾鼓前導 出入閭閻 爭捐財穀 以祭之”

47) 위의 책, 濟州牧 風俗條, “又於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 以娛神 至望日”

상의 원액을 푸는 놀이굿인 ‘산신놀이’ 등이 있다.⁴⁸⁾

2.9.2. 걸궁놀이

제주의 걸궁(농악)에는 일반적으로 정초의 마당밧기 농악, 걸립굿 농악, 꽃놀이 농악, 잔치놀이 농악 등이 있다. 마당밧기 농악은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집집으로 이동하면서 거리굿을 반복하는 것이며, 걸립굿 농악은 마을의 일정한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모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이장과 마을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걸립패농악을 조직하여 마을의 각 집을 돌면서 마당밧기와 유사하게 풍물을 치는 것이며, 꽃놀이 농악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친족되는 사람이 음식과 경비를 대어 마을 풍물잡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풍물을 치게 하는데 말하자면 이 마을을 떠난다는 알림의 풍물을 치는 농악이며, 잔치놀이 농악은 결혼이 있으면 풍물패를 청하여 한바탕 풍물을 치면서 놀게하는 걸궁이다.⁴⁹⁾

2.9.3. 무악놀이

제주의 무속음악인 무가는 다종다양하다. 제주도의 무속의례는 그 형식으로 보아 비념과 굿으로 나누어지고, 굿은 單獨巫儀인 작은 굿과 종합무의인 큰 굿으로 나누어진다. 큰굿의 祭次는 초감제로부터 시작하여 <초신맞이> · <초상계> · <추물공연> · <석살림> · <보세감상> · <불도맞이> · <초공본풀이> · <초공맞이> · <이공본풀이> · <삼공본풀이> · <젯상계> · <시왕맞이> · <세경본풀이> · <제오상계> · <전상놀이> · <양국숙임> · <세경놀이> · <본향드리> · <문전본풀이> · <각도비념> · <군웅만판> · <도진> · <가수리> · <뒤맞이> 순서로 진행된다.⁵⁰⁾ 제주 무악의 유형을 성악과 기악에 따라 그 유형을 정리하면, 전자의 경우 무반주 낭창식 가창유형, 무반주 노래 가창유형, 무반주 대사유편 유형, 장구(또는 북과 함께) 반주의 노래가창 유형으로 파악되고, 후자의 경우 가창 반주로 쓰이는 장구 장단, 가창 반주로 쓰이는 장구와 북 장단, 춤 등의 각종 연희의 반주로 쓰이는 연물치기 장단 등으로 나누어진다.⁵¹⁾

48) 문무병, “굿놀이”,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505~518.

49) 문무병, “걸궁”,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478~482.

50) 秦聖麒 編, 《南國의 巫歌》, 濟州民俗研究所, 1960. ;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51) 조영배, 《제주도무형문화재음악연구》, 도서출판 디딤돌, 1995. ; 조영배, “무악”,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 도교육청, 1996, pp.531~534.

2.10. 생업기술

2.10.1. 농경기술

제주는 화산섬이라 밭농사가 주류다. 자갈 함량이 많고 경작토들의 깊이가 얇은 험악한 조건이기에 농기구 역시 이에 적합한 것이었다. 땅을 일구는 제주의 농기구의 경우 한본토의 것에 비해 작은 반면 '남방애'와 같은 탈곡의 농기구는 한본토의 절구들에 비해 배 이상 크다. 벼 탈곡에 비해 보리·메밀·조·피 등의 탈곡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간다. 제주의 밭들은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필요했는데, 밭을 늘리는 동안 마소를 몰아넣어 오줌과 糞을 받아내어 땅을 기름지게 하는 '바령'의 풍속은 제주 특유의 풍속이다. 거름의 경우도 경작비료로는 거름콩, 바닷모래, 바닷고기거름 등이 쓰였고, 파종비료로는 돛거름, 재거름 등이 쓰였으며, 파종비료와 追肥로 바닷풀거름, 오줌거름 등이 사용되었다.⁵²⁾

2.10.2. 어로기술

제주 바다에는 옥돔·자리·줄락(노래미)·우럭(솜뱅이)·불낙·다금바리·복어·방어·멸치·복들락(그물베도라치) 등의 어종은 물론 미역과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 전복·구쟁기(소라)·오분자기 등의 어패류, 성게·해삼 등의 극피동물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채취하는데 있어 낚시나 그물을 이용한 어로기술은 물론 잠녀들의 어로기술 또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 잠녀들은 바닷속 20m까지 들어가서 길게는 2분 남짓 건디면서 해산물을 캐어낸다. 한 달에 보통 15일 이상을 물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만 직전까지도 물질하고 분만 후 사나흘 만에 바닷속으로 뛰어들기도 한다. 물질은 '굿물질'과 '벧물질'로 나누어지는데, '테왁'을 가슴에 엮고 가까운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치르는 물질이 '굿물질'이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치르는 물질이 '벧물질'이다.⁵³⁾

52) 玄容駿, "農業",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126~131. ; 高光敏, "農業技術",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13~93. ; 高廣民, "농경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233~234.

53)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 ; 金英돈·고광민·한림화, 《濟州의 海女》, 濟州道, 1996. ; 金英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金榮敦, "漁業",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132~136. ; 趙惠貞,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pp.143~168. ; 金榮敦, "濟州海女の 民俗學的 研究", 《濟州島研究》3, 濟州島研究會, 1986, pp. 187~197. ; 金榮敦·

2.10.3. 수렵기술

제주의 중산간 마을은 반농·반수렵의 생활을 해왔다. 특히 사냥은 제주 산간마을의 주된 생업이었다. 제주에서는 전문적인 수렵꾼을 '사농바치', '총바치', '산쟁이', '산포수'라고 하는데, '늑눈이반등갱이'라는 토종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총이나 올가미, 덫, 창, 그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평·노루·지다리·족제비·산뿔(멧돼지)·생이(새) 등을 사냥하였다.⁵⁴⁾

2.10.4. 목축기술

제주는 중산간 지대에 광활한 초지가 형성되어 있어 고려 충렬왕 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제주에 목마장을 두어 소와 말을 키우게 하였다. 목마장의 총책임자는 제주목사이고, 제주판관, 정의현감은 감목관직을 겸임하였다. 감목관 밑에는 목장 관리책임자로 馬監과 牛監을 두었고, 그 밑에 사육을 직접 담당하는 목자(테우리)가 있었다. 소와 말을 기르는 방법에는 휴한지 방목, 중산간 지대의 방목, 산간지대의 방목인 종년방목과 일정 계절 동안 공동으로 마을 목장을 이용하고 겨울이 되면 집에서 키우는 한시적 방목인 계절적 방목 등이 있었다.⁵⁵⁾

2.11. 공예

2.11.1. 목공예

제주의 목공예는 한라산과 가까운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서 비교적 많이 전승되어 왔다. '좁팍', '되약새기', '남방애' 등이 있는데, 특히 전통적인 '남방애'는 '굴목이

金範國·徐庚林, "海女調査研究", 《耽羅文化》5,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6, pp.145~268. ; 김영돈, "해녀", 《濟州의 民俗》Ⅱ, 제주도, 1994, pp.190~280. ; 김영돈, "해녀",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287~308.

54) 秦聖麒, "狩獵(사냥)",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1973, pp.136~139. ; 文武秉, "狩獵技術",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382~455. ; 문무병, "수렵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320~334.

55) 泉靖一, 《濟州島》, 洪性穆 譯, 濟州市愚堂圖書館, 1999, pp.164~170. ; 文武秉, "牧畜技術",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281~381. ; 문무병, "목축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309~319.

나무(느티나무)를, 그 '절귀(공이)는 '도애나무(복숭아나무)를 제일로 쳤다.⁵⁶⁾

2.11.2. 옹기공예

제주의 옹기공예는 진흙으로 만든 것으로 양질의 진흙은 한경면 고산리, 조수리, 대정읍 신평리 일대에서 얻었다. 제주에서 만들어졌던 그릇들은 90도 내외에서 구어진 질그릇인 '지새그릇', 옹기 중에서 가장 대형으로 높이가 1m 이상이며 배가 부르고 입구는 두툼하게 전이 달린 '항'(독), 해안에서 용출되는 식수를 길었다 먹는데 쓰는 '허벅', 항아리보다 훨씬 작은 동이인 '망데기'와 '단지', 술에 설치하여 술을 빚는데 사용한 '고소리'(소줏고리), 대형 뚝배기인 '독사발' 등이 있다.⁵⁷⁾

2.11.3. 주물공예

제주의 주물공예는 그 규모와 방법에 따라 손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거나 달구는 '손풀무'와 땅바닥에 장방형으로 골을 파서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고 그 위에 골에 맞는 널빤지를 걸쳐 놓아 한 쪽에 세 사람씩 서서 널빤지의 두 끝을 널뛰기하듯 디더가며 바람을 일으키는 '골풀무'가 있다. 손풀무는 다시 '뚝뚝불미'와 '토불미'로 구분하는데, 뚝뚝불미에서는 1~2명이 시우쇠를 달군 후 매질하여 칼이나 호미 등을, '토불미'에서 20여 명이 협업으로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룬 3개조가 교대해가며 바람을 일으켜 '독'(鎔鑪)에서 녹인 쇠물을 미리 만들어진 '뎅이'(器本)에 부어넣으며 주로 술·보습 등을 만들어 왔다. 골풀무를 두고 '청탁불미'(또는 디뎌불미, 발판불미)라 한다. 그 규모와 만드는 제품은 '토불미'와 거의 같으나 여섯 사람이 1조를 이룬 2개조가 교대로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는 작업이 다르다.⁵⁸⁾

2.11.4. 관모공예

제주에서 망건·탕건·갓모자·갓양태 등을 만드는 관모공예가 수백 년 동안 성행

56) 高光敏, “木工藝”,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571~588. ; 고광민, “목공예”,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603~608.

57) 金美榮, “濟州道 허벅에 關한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金順伊, “甕器工藝”,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523~555. ; 김순이, “옹기공예”,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633~645.

58) 高光敏, “鑄物工藝”,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556~570. ; 고광민, “주물공예”,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589~602.

하게 된 것은 그 재료가 되는 말총과 涼竹이라는 대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갓일은 제주시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애월읍 동쪽과 조천읍 일대에서 번졌는데, 그 까닭은 이 일대에 한본토와 드나들 수 있는 포구들(산지포·별도포·조천포)이 밀집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⁵⁹⁾

2.11.5. 초공예

제주의 초공예는 뱃짚의 대용으로 새(띠), 어욱(억새), 정동(댕댕이덩굴), 올리(부들), 자오락(천일사초), 끌(취), 줄갱이(으름), 신사라(신서란) 등 야생의 풀과 덩굴들이 사용되어 여러 가지 생활용구를 제작하였다. 뱃짚을 재료로 만든 ‘초신’(짚신), 띠로 만든 우비인 ‘도롱이’(우장), 댕댕이덩굴로 결은 모자인 ‘정당벌립’, ‘덕석’이라고도 하는 명석, 곡식을 담아 놓거나 실어 나를 때 사용하는 ‘멩텅이’(떡서리),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거름이나 흙을 담아 나르는 농기구인 ‘골채’(삼태기), 마소의 목초인 자굴(차풀)로 만든 곡식을 담아 추켜 뜨려 날려서 거나 잡티를 분리시키는 농사용구인 ‘푸른채’(키) 등이 있다.⁶⁰⁾

2.12. 방언

제주의 생명력을 키워온 다양한 전통문화 가운데서도 가장 제주적인 문화의 원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의 방언이다. 제주 방언은 국내 어느 지역의 언어보다도 희귀한 존재로 인정되고 국어학사상 가장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도 사용되는 ‘·’를 비롯해서 예스런 음운과 풍부한 어휘는 제주 사람들의 혼의 집합체이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제주 방언을 음운론적 연구⁶¹⁾, 형태론적 연

59) 金榮敦, 《濟州島民의 民間工藝》, 文化財管理局, 1967. ; 金榮墩, “冠帽工藝”,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 459~485. ; 김영돈, “관모공예”,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646~655.

60) 金順伊, “草工藝”, 《濟州의 民俗》Ⅱ, 濟州道, 1996, pp.486~522. ; 김순이, “초공예”,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609~632.

61)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東京)岩波書店, 1944, pp.456~458. ; 李崇寧, “濟州島方言과 그 意義”, 《國語音韻論研究》1, 乙酉文化社, pp.279~290. ; 康允浩, “濟州島方言에 있어서의 共通語系 語彙體系와 그 環境에 대하여”, 《韓國文化研究院論叢》1, 梨花女子大學校, 1960, pp.111~141. ;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72, pp.119~120. ; 金完鎭,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24, 震檀學會, 1963, pp.87~88. ; 玄平孝, “濟州島方言 ‘·’ 音小考”, 《无涯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

구⁶²⁾, 어휘론적 연구⁶³⁾, 통사론적 연구⁶⁴⁾, 계통론적 연구⁶⁵⁾, 지명에 관한 연구⁶⁶⁾ 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小倉進平은 ‘·’음이 음성학적으로 폐음 ‘오’와 ‘어’와의 중간에 위치하는 발음이라 하였고, 이승녕은 ‘·’음이 제2음절에서는 이미 ‘-’모음으로 거의 변했지만 어두에서는 ‘·’음이 16, 7세기의 중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우중은 ‘·’ 발음시의 개구도를 입술 정면과 측면으로 촬영하는 한편

- 集》, 東國大學校, 1963, pp.629~645. ; 홍성해, “濟州地域語의 子音音韻現象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광웅,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현우중, “제주방언 홀소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현계철, “제주도 방언의 음절 신장 현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오승훈, “제주도 지역어의 구개음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고동호, “국어 마찰음의 통시적 연구 : 제주도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62) 小倉進平, 앞의 책, pp.469~487. ;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3, 延世大學校, 1957, pp.41~51. ; 金貴子, “제주도방언의 존경접미사 연구”,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3. ;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 姜根保,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研究”, 《논문집》9, 제주대학, 1977, pp.11~32. ; 鄭英珍, “濟州島方言의 終結語尾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康貞姬, “제주도방언의 동사접미사 연구”,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 鄭은택, “濟州島 方言의 格語尾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姜公宅, “濟州方言의 反復複合副詞構造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 문순덕, “濟州島 方言의 形態素 ‘-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허기주,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한국고 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宋相助,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1.
- 63) 小倉進平, “朝鮮語の 歷史的研究上より 見たる 濟州島方言の 價値”,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學會, 1924, pp.171~172. ; 方鍾鉉, “濟州島方言採集行脚 特히 加波島에서”, 《朝光》2~3, pp.390~397. ; 金完鎮, “濟州島 方言의 日本語 借用에 對하여”, 《국어국문학》18, 국어국문학회, 1957, pp.112~131. ; 金文奎, “耽羅方言 試 攷”, 《圓光大學論文集》2, 圓光大學, 1960, pp.117~134. ; 張泰鎮, “濟州島 海女集團의 特殊語에 對하여”,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pp. 817~834. ; 姜根保, “濟州島方言의 語彙考(一)”, 《國文學 報》4,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 pp.11~28. ; 金洪植, “‘비바리’ 語攷”, 《延岩玄平孝博士華甲記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0, pp.315~329. ; 李英姬, “濟州島 方言의 象徵語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 文, 1982. ; 姜榮峯, “濟州島方言의 植物 이름 研究”,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64) 成洛秀, “濟州島方言의 統辭論的 研究”, 《국어국문학》68·69, 국어국문학회, 1975, pp.53~96. ; 玄平孝, “濟州 島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74, 국어국문학회, 1977, pp.1~36. ; 김미경, “제주도 방언의 의 문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지홍, “제주도 방언의 동사 보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고영진,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최학규, “제주 방언의 서법체계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洪宗林, “濟州 方言의 樣態와 相範疇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65) 金公七, “耽羅語 研究 序說”, 《국어국문학》34·35, 국어국문학회, 1967, pp.151~170.
- 66) 秦聖麒, 《제주도 지명의 유래》, 제주도 관광안내소, 1960. ; 《濟州市 옛 地名》,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 《남제주군固有地名》, 南濟州郡, 1996. ; 《서귀포시지명유래집》, 서귀포시, 1999. ; 金洪植, “濟州 島 地方의 地名에 對하여”, 《논문집》10, 제주대학, 1978, pp. 85~103. ; 高혜정, “제주도 지명연구”, 경 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X선으로 혀의 정측면 촬영을 하고, ‘.’ 음가는 ‘오’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낙수는 변형문법에 의해 방언 ‘마썸’을 규명하고 있으며, 김홍식은 ‘비바리’ 어휘를 고찰하고 있고, 강영봉은 말리름들을 몽고어와 대비시키면서 살피고 있다. 점차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단행본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크게 사전류⁶⁷⁾와 연구서⁶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13. 설화

2.13.1. 신화

제주의 신화는 문헌신화로 삼성신화, 구전신화로 본풀이라고 하는 무속신화가 대부분이다. 삼성신화는 세 신인을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 순으로 기술한 高麗史 계통⁶⁹⁾과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순으로 기록한 瀛洲誌 계통⁷⁰⁾으로 나누어진다.⁷¹⁾ 본풀이는 심방이 굿을 할 때 의례의 한 형식으로 노래하는 신의 내력담이다. 이러한 본풀이는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로서 전도 공통의 것인 일반 본풀이, 부락수호신인 堂神의 내력담으로 마을마다 다른 당본풀이, 한 집안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로서 각 집안마다 다른 조상본풀이가 있다. 이들 신화들은 어느 것이나 주인공의 출생·성장·고행·결연 등 파란 많은 생활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는 결말을 짓는다.⁷²⁾

-
- 67)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서울新聞社出版社, 1947. ; 朴用厚, 《제주도방언연구》, 동원사, 1960. ;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研究》(資料篇), 二友出版社, 1985. ; 오성찬, 《제주 토속지명 사전》, 민음사, 1992. ;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 오창명, 《제주도의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68) 이승녕,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1957.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1985. ; 성낙수,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1992. ; 홍종립,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1993. ; 강영봉, 《제주의 언어》1,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4. ; 정승철,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1995. ; 강영봉, 《제주의 언어》2,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7.
- 69) 고려사 계통으로는 이 외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 李元鎮의 《耽羅志》, 《東國通鑑》, 李衡祥의 《南宦博物》 등이 있다.
- 70) 영주지 계통으로는 이 외에도 高得宗의 〈序世文〉, 鄭以吾의 《星主高氏本》 등이 있다.
- 71) 張籌根, “三姓神話 解釋의 한 試圖”, 《국어국문학》22, 국어국문학회, 1960, pp.65~70. ; 梁重海, “삼성신화와 혼인지”, 《國文學報》3,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0, pp.49~73. ; 玄容駿, “三姓神話研究”, 《耽羅文化》2,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pp.45~93. ; 허남춘, “三姓神話 一考察”, 《濟州島言語民俗論叢》,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pp.265~280.
- 72)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6. ; 秦聖麒, 《耽羅의 神話》, 平凡社, 1980.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

2.13.2. 전설

제주의 전설은 자연전설·역사전설·신앙전설이 골고루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어 제주적인 특색을 보여준다. 자연전설에는 산악·암석·연못에 대한 전설에 특이한 것이 많고, 역사전설에는 관원·異人·장사·여걸 등에 대한 전설에 특이한 것이 발견된다. 그 중에는 백 골짜기에 한 골짜기가 모자라 범도 왕도 위대한 인물도 나지 않게 된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한, 고종달이가 지맥을 끊어버림으로써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외세에 대한 한, 날개가 달려 태어났다가 엄청난 힘을 지닌 장사로 태어났으면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기져 죽는 인물의 한 등 한을 그려 놓은 것이 많아 제주 사람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⁷³⁾

2.13.3. 민담

제주의 민담은 제주의 자연적 환경, 역사적 배경, 생활양식 등과 어우러져 탄생된 것들이므로 한본토의 것들과 비교할 때 변이형의 모습을 갖는다. 지금까지 채록된 것을 보면 현실이나 공상적 이야기인 <효도한 손자>·<암행어사>·<지령이 아들> 등의 本格譚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엉터리 이야기나 바보들의 이야기나 속이는 이야기인 <방귀 편 며느리>·<거짓말 내기>·<바보 사위> 등의 笑譚이고, <나비의 유래>·<개구리 배가 납작한 이유>·<소의 코를 꿰게 된 이유> 등의 動物譚 순이다.⁷⁴⁾

2.13.4. 전래동화

제주의 전래동화는 제주의 신화, 전설, 민담을 수용하여 생성된 것들로서 1980년대

獻 神話》, 集文堂, 1992. ; 고대경, 《神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 1997. ; 文武秉, “濟州島 堂信仰 研究”, 濟州 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 류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73) 玄容駿,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6.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1(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80.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2(濟州市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3(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金榮敦·玄容駿·玄吉彥,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濟州道傳說誌》, 濟州道, 1985. ; 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 玄容駿, “濟州道 傳統文化藝術 概觀”, 《濟州文化藝術白書》, 韓國文化藝術團 體總聯合會 濟州道支會, 1988, pp.24~25.

74) 秦聖麒,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76.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1(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2(濟州市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3(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金榮敦·玄容駿·玄吉彥,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 현용준 편, 《濟州島民譚》, 도서출판 제주 문화, 1996.

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래동화가 어린이들을 독자로 상정할 때 정전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변용의식이 개입되어 개작물로 나타난다.⁷⁵⁾

2.14. 민요

2.14.1. 민요

제주 민요는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하여 독특하다. 그리고 전승되는 유형의 종류도 다양하다. 제주 민요를 편의상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의 기능상으로 분류할 때 노동요가 가장 많은 편이다. 노동요 가운데는 <밭 가는 노래>·<밭 밟는 노래>·<밭 매는 노래>·<밭곰방메질노래>·<따비질노래>·<보리 훑는 노래>·<타작노래>·<거름 밟는 노래>·<거름 내는 노래>·<밀레질노래>·<씨레질노래>·<벼 훑는 노래> 등의 농업노동요, <배 짓는 노래>·<떼배 짓는 노래>·<떼배 띄우는 노래>·<테왁 짚고 헤엄치는 노래>·<멸치 잡는 노래>·<자리 잡는 노래>·<고기 낚는 노래>·<갈치 낚는 노래> 등의 어업노동요, <나무 베는 노래>·<나무 켜는 노래>·<나무 쪼개는 노래>·<나무 깎는 노래>·<나무 내리는 노래>·<풀 베는 노래>·<목화 따는 노래> 등의 벌채노동요, <베틀노래>·<물레노래> 등의 길쌈노동요, <맷돌노래>·<방아노래>·<연자방아노래> 등의 제분노동요, <방앗돌 굴리는 노래>·<산태질노래>·<양태노래>·<탕건노래>·<망건노래>·<갓모자노래>·<풀무질노래>·<집줄 놓는 노래>·<짚 두드리는 노래>·<흙 이기는 노래>·<집터 다지는 노래>·<새벽질노래>·<흙굿 밟는 노래>·<상량노래>·<마소 모는 노래> 등의 잡역노동요가 있으며, 의식요에는 <성주 풀이>·<결궁노래> 등의 세시의식요, <상여노래>·<가래질노래>·<달구 노래> 등의 장례의식요, <염불노래>·<회심곡> 등의 불교의식요, <서우제노래> 등의 무속의식요가 있으며, 가창유희요에는 <오돌또기>·<이야흥>·<용천검>·<관덕정앞>·<산천초목>·<봉지가>·<길군악>·<동풍가>·<난봉가>·<영변가>·<사랑가>·<개구리타

75) 현길언, 《제주도 이야기》 1·2, 창작과비평사, 1984. ; 강정훈, 《구슬을 먹는 아이》, 관광제주, 1984. ; 제주 아동문학협회, 《알동네 웃동네 외》 1, 영주문학사, 1990. ; 박재형, 《제주도 전래동화》, 대교출판, 1991. ;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6·8·9, 아동문예, 1991~1992. ; 손춘익, 《제주도 전래동화》, 우리 교육, 1997. ; 최범서, 《오돌또기》, 청솔, 1997. ; 장영주, “제주 전래동화의 제3세대 정신”, 《제주문학》 22, 제주문인협회, 1992, pp.173~182. ; 박재형, “제주 전래동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령·〈매화타령〉·〈중타령〉·〈계화타령〉·〈오광산타령〉·〈너영나영〉·〈떡타령〉·〈장타령〉·〈각설이타령〉·〈담방귀타령〉·〈새타령〉·〈흥타령〉·〈노랫가락〉·〈강강술래〉·〈달거리〉·〈엽전타령〉·〈아리랑〉·〈영주십경가〉·〈화초타령〉·〈선유가〉 등이 있다.⁷⁶⁾ 제주 민요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자료집이 출간되었고⁷⁷⁾, 연구도⁷⁸⁾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14.2. 전래동요

제주 전래동요의 전승양상도 민요에 못지 않게 다양하다. 제주 전래동요를 편의상 기능별로 분류하였을 때 유희요가 노동요나 의식요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전래동요의 근본적 성격과도 통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은 놀면서 동요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주 전래동요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유희요에 〈꼬리따기노래〉·〈술래잡기노래〉·〈줄짓기노래〉·〈어깨동무노래〉·〈밤놀이노래〉·〈보물찾

76) 윤치부, “제주 민요의 기능별 분류”, 《論文集》 25, 濟州教育大學校, 1996, pp.71~109.

77)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 秦聖麒, 《濟州島民謠》 1, 희망프린트사, 1958. ; 秦聖麒, 《濟州島民謠》 2,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 秦聖麒, 《濟州島民謠》 3, 성문프린트사, 1958. ; 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1963.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2(濟州市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3(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藝術研究室, 《韓國의 民俗音樂 : 濟州島民謠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文化藝術擔當官室, 《濟州의 民謠》, 濟州道, 1992. ; 문화방송편,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78)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 趙泳培, 《濟州島 民俗音樂 : 通俗民謠研究篇》, 新亞文化社, 1991. ;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 연구》, 도서출판 예술, 1992. ; 조영배, 《남제주군민요 조사연구》, 도서출판 예술, 1996. ; 조영배, 《향토민요와 문화》, 도서출판 예술, 1998.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도, 2000. ; 左永助, “韓國民謠研究 :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5. ; 羅運榮, “音樂 : 濟州道 民謠의 音樂構造를 中心으로”,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175~191. ; 林憲道, “韓國民謠研究 : 음곡의 구조분석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 강영희, “제주도 해녀 밧노래의 분석적 연구 : Hetero phonic적 성격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 姜性均,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 邊聖久, “濟州島 서우젯소리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 김은자,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박연희, “제주도 노동요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강문유, “제주도 상여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梁永子, “濟州 民謠 시집살이 노래 연구”, 濟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 金順斗, “濟州民謠의 律格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 趙泳培, “濟州島 民謠의 音樂樣式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기노래)·〈뛰어내리기노래〉·〈손잡고 뛰놀기노래〉·〈옆으로 아이 업기 노래〉·〈다리
헤기 노래〉·〈손가락 헤기 노래〉·〈손뼉 치기 노래〉 등의 동작유희요, 〈줄넘기노
래〉·〈고무줄놀이노래〉·〈공놀이노래〉·〈오자미놀이노래〉·〈공기놀이노래〉 등의 곡
예유희요, 〈흙장난노래〉·〈풀각시노래〉·〈보리피리노래〉 등의 조작유희요, 〈사람 그
리기 노래〉·〈곰 그리기 노래〉·〈병아리 그리기 노래〉·〈새 그리기 노래〉 등의 그림
유희요, 〈머리 깎은 아이 노래〉·〈이 빠진 아이 노래〉·〈우는 아이 노래〉·〈오줌 싼
아이 노래〉·〈방귀 똥 아이 노래〉·〈싸우는 아이 노래〉·〈화난 아이 노래〉·〈잘난
체하는 아이 노래〉·〈뚱뚱한 사람 노래〉·〈중노래〉·〈곰보노래〉·〈거지노래〉·〈허풍
쟁이노래〉·〈일본사람노래〉·〈선생님노래〉·〈딸노래〉·〈오빠노래〉·〈어머니노래〉·
〈꼬마신랑노래〉·〈며느리노래〉·〈할머니노래〉·〈가족노래〉·〈사람노래〉 등의 사람유
희요, 〈평노래〉·〈까마귀노래〉·〈기러기노래〉·〈술개노래〉·〈매노래〉·〈굴뚝새노
래〉·〈파랑새노래〉·〈제비노래〉·〈참새노래〉·〈오리노래〉·〈새노래〉 등의 새유희요,
〈잠자리노래〉·〈매미노래〉·〈개똥벌레노래〉·〈뚝딱벌레노래〉·〈방아깨비노래〉·〈풍
뎡이노래〉·〈달팽이노래〉·〈도롱이노래〉·〈지렁이노래〉·〈거미노래〉·〈벼룩노래〉·
〈개구리노래〉·〈두꺼비노래〉 등의 곤충유희요, 〈강아지노래〉·〈사슴노래〉·〈소노래〉
등의 짐승유희요, 〈조개노래〉·〈게노래〉·〈고둥노래〉·〈우렁불락노래〉·〈옥돔노래〉·
〈물고기노래〉 등의 어류유희요, 〈고사리노래〉·〈산딸기노래〉·〈쇠비름노래〉·〈아카시
아잎노래〉·〈나무노래〉·〈풀노래〉 등의 식물유희요, 〈가락지노래〉·〈담배노래〉·〈떡
노래〉 등의 사물유희요, 〈바람노래〉·〈눈노래〉·〈비노래〉·〈달노래〉·〈더위노래〉 등
의 자연현상유희요, 〈숫자풀이노래〉·〈요일풀이노래〉·〈한글풀이노래〉·〈장풀이노
래〉·〈말대답노래〉·〈말잇기노래〉·〈말희롱노래〉·〈단숨에 외우기 노래〉 등의 언어
유희요가 있으며, 〈뱀 쫓기 노래〉·〈비 오지 말기 노래〉·〈새 이 나기 노래〉·〈눈 티
없애기 노래〉·〈피부병 낫기 노래〉·〈몸 말리기 노래〉 등의 주술요, 〈자장 노래〉·
〈아기 어르기 노래〉 등의 노동요가 있다.⁷⁹⁾ 제주 전래동요에 대해서는 1980년대 들어
서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자료집은 1990년대 들어서야 간행되었
다.⁸⁰⁾

79) 윤치부 편,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1999.

80)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집문당, 1993. ; 左惠景, “濟州傳承童謠研究”, 濟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2.15. 속담

제주 속담의 형성에는 고립·척박·강압·수탈 등의 외적 요건과 자립·초극의 의지 등의 내적 배경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형성된 제주 속담은 의식주 해결과 연관된 생업속담과 그 외의 일반속담으로 나누어진다. 생업속담의 경우 농사속담·축산속담·어업속담·상업속담·수렵속담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교시성과 구연성이 주된 기능이다. 제주 속담의 주제로는 警告·人情·守分 등의 경세관, 勤實·實利·儉約·自立·苦衷·強靱 등의 생계관, 運數·吉凶·因緣·來世 등의 운명관 등을 들 수 있다.⁸¹⁾

2.16. 수수께끼

제주의 수수께끼는 제주 사람의 생활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어 농업과 어업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수수께끼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사물의 형태나 속성을 은유로서 표현하는 민중의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수수께끼를 그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천체·땅·바다·눈·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의식주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 말씨·고유명사·글자·신호·기구·신앙 등의 생활도구에 관한 것들로 구분된다.⁸²⁾

2.17. 금기어

금기어의 형성 배경이 경외와 속신, 경계와 근신을 통해 무사형통을 꾀하는 만큼 언행의 제동에 있다. 제주 금기어의 유형은 ‘밤에 집 안에서 셋브름 불지 말라’와 같이 ‘~하지 말라’의 형태인 ‘말라’ 형과 ‘개 울민 그 집안 망훈다’처럼 ‘~훈다’나 ‘~민 ~훈다’ 형태인 ‘훈다’ 형으로 나누어진다. 제주 금기어의 내용은 통과례류와

81) 秦聖麒, 《濟州島俗談》, 濟州民俗研究所, 1959. ; 高在奐, 《濟州島俗談研究》, 集文堂, 1993. ; 高在奐, 《濟州島俗談辭典》, 濟州道, 1999.

82) 秦聖麒, 《南國의 수수께끼》, 濟州民俗研究所, 1965. ; 秦聖麒, “수수께끼”,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pp.1973, 243~248.

생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애기 난 때 배똥줄 찢르게 끄치지 말라’ 같은 출산 금기어, ‘새각씨 들어올 때 씨어멍광 눈 마주치지 말라’ 같은 혼사 금기어, ‘호상옷 실 꼭작 안 지운다’ 같은 장사 금기어, ‘젯상엔 복숭개 안 올린다’ 같은 제사 금기어 등이 있고, 후자에는 ‘콩밭디 똥싸민 배락 맞나’ 같은 농사 금기어, ‘개 오래 안 질룬다’ 같은 축산 금기어, ‘애비 아덜광 성젠 혼배에 안 탄다’ 같은 어업 금기어, ‘식전에 웨상 안 혼다’ 같은 상업 금기어, ‘새끼철에 사농 안 한다’ 같은 수렵 금기어 등이 있다.⁸³⁾

2.18. 회화 · 서예 · 조각

제주의 미술은 회화 · 서예 · 조각 등에서 그 전통성을 찾을 수 있다. 회화의 경우 觀德亭 들보에 그려진 그림인 〈杜甫(醉過楊州橋滿軒)〉 · 〈十長生圖〉 · 〈高山四皓〉 · 〈赤壁大捷圖〉 · 〈大狩獵圖〉 · 〈陣中西城彈琴圖〉 · 〈鴻門宴〉 등은 작자 미상이나 관덕정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민화로 각 가정의 병풍에 남아 있는 것이 더러 있으며, 민화 중 제주시 용담동에 있었던 내왓당의 〈巫神圖〉는 조선시대 작품으로 서풍이 특이하다. 서예는 유배자들의 영향 특히 秋史 金正喜에 의해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金九五 · 朴季詹 · 姜道渾 등의 추사 제자들의 서예전통은 제주 서예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조각으로는 제주시 건입동에 있었던 東資福寺(萬壽寺)와 용담동에 있었던 西資福寺(海輪寺)의 미륵과 돌하르방을 비롯하여 제주목 · 정의현 · 대정현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은 제주 민속조각품의 일품으로 꼽힌다.⁸⁴⁾

2.19. 문화재

제주도 문화재의 특성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역사배경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제주적

83) 秦聖麒, 《南國의 禁忌語研究》, 濟州民俗研究所, 1972. ; 김영돈, “禁忌談”, 《濟州道誌》 3, 濟州道, 1993. pp.1386~1401. ; 고재환, “금기담”,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1996, pp.851~864.

84) 洪貞杓, “濟州島의 美術概觀”,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356~371. ; 玄容駿, “濟州道 傳統文化藝術 概觀”, 《濟州文化藝術白書》,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 濟州道支會, 1988, pp.17~27.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첫째로 제주도의 문화재는 천연기념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 지정문화재는 총 102건인데 국가지정 32건 중 18건이 천연기념물이며, 지방문화재는 총 70건인데 그 중 자연기념물이 18건이나 된다. 이들 천연기념물은 종별로 보면 지정문화재의 서귀포층의 패류화석, 무태장어서식지, 제주산곰부리분화구, 泗水島 해조류 서식지, 제주말 각 1건, 용암동굴(협재리의 용암동굴지대와 김녕굴·만장굴, 어음리빌레못동굴) 2건, 지방문화재의 일출봉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식물이다. 둘째로 유형문화재는 그 수가 극히 적는데 신화적 사적의 특색을 지닌다. 유형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는 보물인 관덕정·삼성혈을 제외하면 거의 왜소하다. 셋째로 사적기념물들은 비록 규모는 작으나 방어시설이 많다는 점이다. 제주·대정·정의 성지를 비롯하여 別防鎭·烽燧臺 등이 주된 것이다. 이들 방어시설은 제주의 역사에서 외적 수난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다. 몽고의 통치,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 등에 대한 제주 사람의 끈질긴 방어태세가 오늘날 이런 사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넷째로 ‘당 오백 절 오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찰문화재가 적은 편이다. 불탑사오층탑, 법화사지, 복신미륵 등이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나 이것들은 당시 사찰의 자취일 뿐 온전한 것이 아니다.⁸⁵⁾

3. 21세기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과제

20세기에 비로소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화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1980년대 후반 들어 제주도의 초·중고 교사들은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는 三無精神을 제주인의 주요한 덕목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⁸⁶⁾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각 초등학교마다 그 마을의 마을지를 발간하도록 함으로써⁸⁷⁾ 제주 전통문

85) 《南濟州의 傳統과 邑》, 南濟州郡, 1981. ; 《濟州의 文化財》, 濟州道, 1982. ; 《濟州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濟州道, 1986. ; 《濟州의 先史遺蹟》, 濟州道·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 《南濟州의 文化遺蹟》, 南濟州郡, 1992. ;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1996. ;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 현춘식, “文化財”, 《濟州道誌》 3, 濟州道, 1993, pp.1402~1523.

86) 《三無의 邑》 I ~ V, 제주도교육위원회, 1984~1988. ; 《三無精神教育資料集》, 濟州道教育研究院, 1986~1988.

87) 한 실례로써 도순초등학교에서 발간한 《道順·龍興誌》에는 ‘자연환경, 설촌유래, 향토사, 인구, 의식주생활, 교통과 통신, 산업, 교육, 세시풍속, 통과 의례, 신앙, 사건과 설화, 민요와 동요, 민구, 지명유래,

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전통문화 교육은 일과성 운동이 되어버렸지만 그 영향은 교육 현장에 살아있어 현장학습이나 각 교과 시간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감이 적지 않다.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21세기에서 제주 전통문화 교육이 당면하고 감당해야 할 과제의 일부분이나마 전망하고 요약해 본다.

3.1. 교재와 관련된 과제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학습자들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편찬되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경우 인지 발달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획일적 교재로서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펼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교재적 성격을 띤 것들이 여러 권 있었지만 학습자들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일부 교육기관에서 만든 교재들은 비매품으로 간행되어 학교당 한두 권 정도가 배포됨으로써 막상 학생들의 교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⁸⁸⁾ 또한 앞으로는 문자교재 수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편리하고도 자유롭게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전산화를 비롯한 각종 정보 공유 시스템 등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한 자료 수집, 정리 작업이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 전통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전도에 걸쳐 전면적으로 조사, 수집한다. 제주도나 제주도교육청 또는 책임 있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그 성과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방언, 속담, 어린이 놀이, 명승지, 이 고장의 인물, 역대리장, 기관과 단체' 등의 22개의 항목에 걸쳐 기술되고 있다. (《道順·龍興誌》, 道順國民學校, 1987.)

88) 이를테면 1996년 제주도교육청이 간행한 《제주의 전통문화》는 향토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사나 성인 위주의 자료이지 초등학생들에게는 책의 내용기술이나 두께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비매품으로 간행됨으로써 교실 현장에까지 나아갈 수 없게 하였다. 또한 1999년 제주교육 박물관이 간행한 《우리문화이야기》는 교과관련 향토학습자료로서 개발하였으나 사전적 성격의 내용 기술과 편찬으로 아동들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했다고 느껴지지 않으며 역시 비매품으로 간행되었다.

한다. 또한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연구성과들이나 각종 목록을 전산화하여 학습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다. ②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각각의 제주 전통문화 교재가 간행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학년과 중학년과 고학년의 인지 발달 정도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재들을 간행한다. 그리고 교재는 한 권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의례생활, 민간신앙, 세시풍속, 전승놀이 등처럼 시리즈 형태로 주제에 따라 여러 권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교재들은 비매품으로 간행하여 특정의 사람들만의 독점물이 되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누구나 쉽게 구입하여 볼 수 있도록 유가치 체계로 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손쉽게 이들 교재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③ 오디오, 비디오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제주의 민요나 무가 등의 음악적 요소가 강한 자료나 문화재 등과 같이 시각성이 요구되는 자료들은 실제 음반이나 테이프 및 비디오 자료 등의 시청각 교재를 개발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적 욕구는 이제 단순히 문자 교재만을 가지고 교육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강한 동기유발을 자극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자 교재 이외의 교육공학적 입장에서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④ CD나 웹 사이트를 이용한 컴퓨터 교재를 개발한다. 21세기에는 컴퓨터가 교육현장에서 지금보다 더 보편화될 것이기에 컴퓨터에 이용한 교육은 경우에 따라 학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미 대부분의 교실에는 적어도 한 대 이상의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소프트웨어는 많지 않다. 그러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제주 전통문화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3.2.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제

①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내용을 접목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통해 제주 전통문화 교육을 강화시킨다. ②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속에 제주 전통문화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제주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소양을 함양함과 아울러 장차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관심을 갖고 자신 있게 지도하도록 한다. ③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속에 제주 전통문화 교육 강좌를 설강하거나 전통문화교육전공의 학과를 개

설하여 학위논문으로 이어지게 한다. 여기에서는 제주 전통문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연구하게 함으로써 실제 교육현장에 연계되도록 한다. ④ 교사의 교내외 각종 연수시 제주 전통문화 교육내용을 삼입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

3.3. 제주 전통문화 예술 축제와 관련된 과제

① 한라문화제가 성인 위주의 전통문화 예술 축제가 됨으로써 학생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뿌리를 말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학생 시절부터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는 결국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승화될 것이다. 아는 만큼 느낀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주 전통문화를 이해시키도록 함은 필연적이다. ② 한라문화제와는 별도의 가칭 '전도 학생 전통문화 예술 한마당' 등을 마련하여 많은 학생들을 어우러짐의 한마당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날 외래문화에 급속도로 경도되는 현상을 여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3.4. 언론 매체 활용을 통한 과제

일부 방송이나 신문에서 제주의 민요나 전통문화에 대한 방송이나 간헐적으로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기는 하나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방영하거나 신문에 기획물로 연재되었을 때 그 교육적 효과는 어느 것 못지 않게 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과 신문의 프로듀서나 기자들이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그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기획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5.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과제

① 제주 전통문화와 관련된 연구소로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나 제주도의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교육대학교의 제주지역사회연구소 외에 개인의 몇몇 사설연구소 등을 들 수 있는데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대라는 공간 속에 한정되어 그 외의 연구인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학문으로서의 제주 전통문화를 연구하는데 머물고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전통문화보다도 도정의 통치원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듯하다. 또한 개인의 사설연구소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연구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순수학문으로서의 제주 전통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응용학문적 성격의 제주 전통문화 교육 연구소 등의 설립이 이루어져 제주 전통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첫 출범한 제주교육대학교의 제주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이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 제주학회나 제주도사연구회 등이 있어 제주학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제주 전통문화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 제주의 인문·사회·자연과학까지 총망라함으로써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후자의 경우 제주의 역사에만 국한시킴으로써 학제적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가칭 '제주 전통문화 교육학회' 같은 것이 창립되어 본격적인 제주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③ 각종 교사 중심의 제주 전통문화와 관련된 동아리 성격의 모임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그들의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21세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따뜻하고 열정적인 하트웨어(heartware)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6. 세계인이 공유하는 제주 전통문화를 위한 과제

지난날 제주는 우리 나라의 변방이었다. 그래서 많은 유배인들이 유형지였으며, 심지어는 중앙의 통치원리가 왜곡되고 굴절되어 지배되는 고통의 땅이었다. 그러기에 이재수난 같은 민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20세기에 와서는 4·3사건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절해고도로서의 변방성은 오히려 제주다운 전

통문화를 만들어내는 밑바탕이 되었고, 그것은 주어진 현실에 온몸으로 부딪히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재창조되었다. 때로는 본래적 모습에 외래적 요소가 습합되면서 제주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말기부터 문화 현상은 문화의 중심에 어느덧 서구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역사 저 편으로 밀어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새롭게 도래한 21세기에는 지구공동체의식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이다. 지역, 인종, 관습의 벽을 허물고 인류는 바야흐로 지구가족 내지 세계시민으로 살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시대가 목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지구가족 내지 세계시민의 모델이 서구문화나 미국문화의 보편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오히려 제주 전통문화의 세계화 내지 보편화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사람이 아닌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의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과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이해나 무지함으로써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제주 전통문화는 하나의 막연한 바램이나 구호에 그쳐 버릴 공산이 크다. 때문에 우선은 제주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에게 제주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마련하여 제주 전통문화의 지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새로운 천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먼저 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오늘의 제주 사람들과 그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내일을 올곧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제주 전통문화를 배워 알고 이해하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앞날의 희망이 거품이 아니어야 한다면 지금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주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일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들이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인드가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 바탕 위에 교육 교재나 교육과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제주 전통문화를 새롭게 정리 발굴하는 일이며, 그 위

에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심화되고 이들 연구 성과들이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책임 있는 기관의 주도적 역할 아래 공동의 노력의 결집되었을 때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가 없는 민족은 혼이 없는 민족이라 하였다.